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좋은 주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9).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어둔 밤을 맞이한 이들에게 생명의 참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의 정점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겸허함을 허락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한10:9	인도자
♠ 교 독 문	12. 시편32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전나래 선생 II.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88. 내 진정 사모하는	다함께
성경봉독	I. 엠2:8-10	인도자
	II. 롬12:14-18	김근종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김기석 목사
	II. 축복의 사명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르는 주님의 목도꾼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밝습니다.

다함께 : 아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품부된 생의 뜻을 안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흘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8월 동교회 활동	말씀 : 최인환 전도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백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김 극 집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진 홍순구 박효선 정경례 고숙이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송양진 안정숙 허정운

평화 만들기의 시작

평화운동가는 기도한다. 기도는 모든 평화 만들기의 시작이자 끝이요, 근원이자 결실이며, 핵심이자 내용물이고, 기초이자 목표다. 나는 이 말을 하면서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 곧 우리가 기도 중에 받는 선물이라는 문제의 핵심으로 나를 곧장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요한14:27)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처에서 빠져 나와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우리가 새로운 거처로 들어가는 일 이야말로 기도가 지향하는 것 전부다. 문제는 사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당신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당신의 집은 어디냐?” 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그분이 불행한 날 이 몸을 당신 장막에 숨기시며” 그곳에서는 “금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쳐들리게 된다”(시26). 우리는 만물의 종식과 파괴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유혹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생활 걱정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덮쳐올 듯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누가21:34-36)

늘 기도하는 일은 평화 만들기의 첫 번째 관문이다. 생활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생활고가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는 현상을 혼연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의 변화시키는 힘과 기도가 평

화 만들기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날마다 인간들이 드러내는 행동거지를 살펴보면, 나는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가 하는 생각에 새삼 질리곤 한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늘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주목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이유를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는—자신의 명예가 되는—우리의 더없이 고결한 생동과 말과 공상까지도 이 같은 욕구들로 뒤엉켜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친구를 위로하러 갈 때, 그 친구가 우리의 방문을 고맙게 여길지 염려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세상의 굶주림과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교활하게도 인정과 찬사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러 온 이들의 이야기에 지극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감상주의와 호기심의 덮에 걸려 있는 자신을 곧 발견한다. 심지어 우리는 확신과 열정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를 이야기할 때조차, 자신을 관심의 초점에 올려놓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네 행실 가운데 많은 것이—심지어 이른바 선한 행실까지도—비록 무의식일망정 우리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을 알리고, 우리가 청산해야 할 세계를 오히려 확신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그토록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죄인들의 ‘선행’인 것이다.

—헨리 나웬, <<평화에 이르는 길>> 중에서

무슨 인생이 그럴까, 근심에 찌들어
가던 길 멈춰 서 바라볼 시간 없다면
양이나 젖소들처럼 나무 아래 서서
쉬엄쉬엄 바라볼 틈 없다면
숲속 지날 때 다람쥐들이 풀숲에
도토리 숨기는 걸 볼 시간 없다면
한낮에도 밤하늘처럼 별이 총총한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W.S. 데이비스)

삶이 늘 즐겁기만 하다면

하늘에 온통 햇빛만 가득하다면
우리 얼굴은
시원한 빗줄기를 한 번 더
느끼길 원할 겁니다.

세상에 늘 음악 소리만 들린다면
우리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 사이사이
달콤한 침묵이 흐르기를 갈망할 겁니다.

삶이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면
우리 영혼은
차라리 슬픔의 고요한 품 속
허탈한 웃음에서 휴식을 찾을 겁니다.

-헨리 반 다이크(미국의 시인, 수필가, 목사)

소나기 한번 내리지 않고 바람 한 줄기 없이 햇볕만 가득한 날씨, 소음 하나 없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가득한 세상, 늘 행복해서 언제나 미소 짓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 걱정거리 하나 없고 미워할 사람 하나 없고 훌륭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 하루하루 버겁고 극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더욱 원하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영희)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권혁순 박혜경 이한림 김명희 이선림 백묘현 이유선 방극숙 서원금
안정숙 박영숙 이인웅 박창운 허정윤 김재흥 최희영

월정헌금:

유증희 이재문 김남중 오복순 박준희 이기분 이정은 김 극 고속이
이갑재 홍복선 송임희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최인환 홍복선 김정자 방 민 고은숙 유형준 김현미
무명1

생일감사헌금:

윤정덕 장재영 김재영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김기석(1) 누계: 2,01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시간은 동호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귀한 사귄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아름다운 원로** : 오늘 수요일(23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수련회 보고회** : 다음 주일 오후 집회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총결산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 **신앙실천** : 감사와 기쁨에 주과수를 맞추고 사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 헌화 : 백묘현 권사 (고 배기만 집사 3주기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